

# 전·월세 가구 1~3년마다 옮겨다녀

### 도내 1인 가구 2015년보다 3.7% 증가

23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전북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가구·주택 부문에 따르면 전라북도 가구의 점유형태는 자기집 비율이 67.7%로 가장 높고, 월세(18.7%), 전세(8.3%), 무상(4.5%), 사글세(0.8%)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별 거주기간은 25년 이상이 15만 1천 가구(19.9%)로 가장 많고, 1~3년 미만 12만 9천 가구(17.1%), 5~10년 미만 12만 1천 가구(15.9%) 순으로 나타났다. 점유형태별로는 자기집은 25년 이상 거주비율이 28.2%로 가장 높고, 전세(34.8%), 월세(30.8%), 무상(19.8%)은 1~3년 미만, 사글세(38.7%)는 1년 미만이 가장 높았다.

1인 가구 조사 부문에서는 전체 가구(75만6,000가구)의 33.8%(25만5,000가구)를 차지하며, 2015년 대비 3.7%p 증가했다. 1인 가구의 성별로는 남자 가구의 24.7%, 여자 가구의 50.8%를 차지했고, 연령대별 비율로는 29세 이하 77.4%(4만7,000가구), 70대 이상 41.8%(6만7,000가구), 30대 34.2%(2만 9,000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는 14만 가구(54.7%)로 나타났고, 성별로는 남자 가구의 65.9%, 여자 가구의 44.8%가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30대 가구가 86.4%(2만5,000가구)로 가장 높고, 40대(81.4%), 50대(73.2%)

순으로 나타났다.

혼자 사는 주된 사유는 '본인직장'이 7만 가구(27.3%)로 가장 많았고, 성별로는 남자는 본인직장(37.8%), 여자는 가족사별(33.0%) 비율이 가장 높았다. 혼자 산 기간은 1~3년 미만이 5만 1천 가구(19.9%)로 가장 많고, 20년 이상 혼자 산 가구는 4만1,000가구(16.2%)로 나타났다.

거처 종류는 단독주택(56.8%), 아파트(34.4%), 주택이외의 거처(4.0%) 순이며, 2015년 대비 아파트와 주택이외의 거처 거주비율은 각각 4.7%p, 1.1%p 증가하고, 단독주택의 거주비율은 5.6%p 감소했다.

혼인상태별로는 미혼이 10만3,000가구(40.2%)로 가장 많고, 사별 7만 6,000가구(29.8%), 배우자 있음 4만 3,000가구(15.8%), 이혼 3만6,000가구

(14.1%)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사별을 제외한 모든 혼인상태에서 남자 가구의 비율이 높은 남자는 미혼(53.8%), 배우자 있음(20.4%), 이혼(16.7%) 순이며, 여자는 사별(48.5%), 미혼(28.0%), 이혼(11.8%)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본 항목에서는 전체 가구(75만6,000가구) 중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11만 가구(14.5%)로 나타났고, 마시는 물은 수도물 끓여 마심 가구가 29만 6천 가구(39.1%)로 가장 많고, 수도물 정수해서 마심 18만 가구(23.9%), 생수 그대로 마심 17만4,000가구(23.0%)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라북도 소방시설(소화기 또는 화재경보기)을 보유한 가구는 59만 가구(79.9%)로 나타났다.

/최대희 기자

## 브로콜리 새싹 속 항암물질 극대화

### '설포라판' 함량 5배 늘어 대량 생산 가능·상품성 인정



브로콜리 새싹 추출액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브로콜리 새싹에 들어 있는 기능성 물질인 설포라판 함량을 5배 이상 높이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브로콜리는 꽃을 음식 재료로 많이 활용하지만, 종자 발아 후 7일 이내의 새싹에 더 많은 유용 성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분 중에 설포라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글루코시놀레이트가 십자화과 작물 중 가장 많이 들어 있다. 설포라판은 항암, 항산화, 항염증 등 생리활성이 우수하다고 알려진 기능성 물질이다.

새싹 속 글루코시놀레이트는 미로시나아제 효소와 반응하면 설포라판으로 전환된다. 반면 새싹에는 미로시나아제와 경쟁적으로 작용하는 ESP라는 단백질이 있어 활성이 낮은 설포라판으로 전환되기도 한다. 연구진은 ESP를 억제하기 위해 열을 처리한 후 미로시나아제를 보충하기 위한 무순을 첨가해 설포라판 생성을 촉진했다. 이 기술을 적용한 결과, 무순을 첨가한 브로콜리 새싹즙의 설포라판이 첨가하지 않은 새싹즙보다 약 5.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확인한 연구진은 현장 실증연구를 통해 원천기술이 녹즙, 과채 음료 대량 생산 시설과 공정에 적합하도록 수정, 보완했다. 또한 소비자 시용과 설문조사를 거쳐 상품성을 검증했다. 소비자 900

여 명을 대상으로 시제품 기호도를 평가한 결과, 응답자의 78%가 '좋다' 또는 '매우 좋다'고 평가해 상품성을 인정받았다. 농진청은 이번 연구 성과를 '설포라판 함량 증진 브로콜리 새싹의 제조방법(10-2020-0124182)'으로 특허출원 완료했다.

시용회에 참석한 소비자 김경미 씨는 "봄에 좋은 성분을 간편하게 음료로 섭취할 수 있어 만족스러웠다"며 "건강과 맛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관련 제품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농진청 기능성식품과 김영 과장은 "브로콜리 새싹의 기능성 물질을 극대화시키는 원천기술을 개발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었다"며 "이를 계기로 농가 소득 향상과 국민 건강 증진, 식품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최대희 기자

### 'NH소상공인파트너' 출시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농협상호금융이 금융, 경영·세무지원, 식자재 구매 등을 한데 모은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플랫폼 'NH소상공인파트너'를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NH소상공인파트너에서는 전 은행의 계좌를 통합해 관리할 수 있고, 보안매체 없이 1일 2백만 원까지 송금 가능하다. 또한 사업장의 매출과 매입, 손익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공해 사업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증빙자료를 세무사무소와 실시간 연동해 세무업무까지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아울러 요식업 등 식자재 구매가 필요한 고객은 앱과 연동된 농협몰을 통해 신선한 농산물을 바로 주문할 수 있다. 한편 기본 서비스 이용료는 무료이며 농협 기업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가입을 원하는 고객은 가까운 농·축협 영업점 방문 또는 기업인터넷뱅킹에 접속해 서비스 가입을 신청한 후 'NH소상공인파트너' 앱을 설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지난해 3차로 백년가게에 선정된 익산 소재 배불볶집 본점 앞에서 현판식을 연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부대찌개 명가·짚는 전통한복점에 지속 경영 격려

### 중기청, 배불볶집·신애자 한복에 백년가게 선정 현판식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신재경, 이하 전북중기청)은 지난해 3차로 선정된 '백년가게'의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중기청은 '백년가게 육성사업'을 통해 100년 이상 존속하고 성장할 수 있는 업체를 발굴·육성해 성공 모델을 확산하고자 업력이 30년 이상(국민추천제의 경우 20년이상) 된 우수 중·소상인을 '백년가게'로 선정하고 있다. 지난해 국민추천을 통해 3차에 선정된 배불볶집 본점(익산), 신애자 한복(전주)은 오랫동안 방문해 온 단골이 추천하고 서류심사, 현장평가, 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이어서

현판식은 고유의 사업을 장기간 계승 발전시키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현판 제막식과 인증 확인서 전달을 통해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속 경영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백년가게'로 선정된 '배불볶집'은 1992년에 부대찌개 전문점으로 창업해 28년간 익산의 명문 음식점으로 대표음식은 부대찌개와 곱창전골이다. 임숙희 대표는 "익산의 음식 명가로 자리 잡기까지의 열정을 단골 손님들이 인정해줘서 더 뿌듯하다"고 말했다.

또한 '신애자 한복'은 전주 웨딩거리에서 24년째 한복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북지역 백년가게 중 한복 분야로는 첫 지정이다. 신애자 대표는 "20세부터 37년간 꾸준히 한복과 함께 하며 전통한복은 '짚는 것'이라는 일념으로 전통 계승에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백년가게로 선정된 업체에는 인증현판과 확인서를 제공하고 시설 개선 및 판로지원 사업과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융자금리 우대(0.4%p) 등의 혜택을 지원한다.

신재경 청장은 "혁신적인 경영방법으로 이어갈 '백년가게'를 확대 발굴하고 육성해 나가겠다"며 "오피크린 확산으로 어려움이 더 커진 소상공인들과 가까이 소통하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대희 기자



### 전건협 전북도회 정기총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임근홍)는 23일 전주 라한호텔 온고을홀에서 대표회원 및 내외빈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7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북도 김형우 건설교통국장 ▲전라북도의회 송지용 의장 ▲전주상공회의소 윤방삼 회장 ▲중앙회 김승기 상임부회장 등이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총회에 앞서 한자리에 모인 전문건설업 종사자들은 업역패지 및 상호시장 개방으로 인해 존재위기에 놓인 전문건설업의 위기와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전문건설생존권 보장을 위해 생산체계 개편 원천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북도 김형우 건설교통국장 ▲전라북도의회 송지용 의장 ▲전주상공회의소 윤방삼 회장 ▲중앙회 김승기 상임부회장 등이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총회에 앞서 한자리에 모인 전문건설업 종사자들은 업역패지 및 상호시장 개방으로 인해 존재위기에 놓인 전문건설업의 위기와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전문건설생존권 보장을 위해 생산체계 개편 원천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했다.

한편 총회에서는 유공자 및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힘써준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패 전달이 있었으며, 또한 인재를 육성하고 회원사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회원사 대표·소속직원 및 자녀들에게 장학증서 및 장학금을 전달했다. /최대희 기자

##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입주기업 '첫 삽'

### 유진솔라, 4월 말 공장 완공 후 5월부터 가동

### 올해 158억 매출이 목표... 15명 일자리 창출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의 메카와 같은 전북 부안에서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 준공 7년만에 태양광발전 생산기업이 첫 삽을 뜨게 됐다.

전북도는 이달 착공한 (유)유진솔라는 수상태양광 부력체를 생산하는 업체로 4월말 공장을 완공한 뒤 5월부터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장은 연면적 3,084㎡ 규모로 2개의 공장동과 1개의 관리동으로 구성되며, 수상태양광 제작을 위한 구조물과 부력체를 각각의 공장동에서 생산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전북도, 부안군과 공장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11월 1만2,705㎡ 부지면적의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 (유)유진솔라는 이 공장에 총 4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공장 건립에 따라 15명의 직원을 직접 고용할 계획이며, 올해 1,000톤의 구조시스템 등의 생산으로 158억 원의 매출 실적을 예상한다고 업체 관계자

는 밝혔다. 또한 직원고용 및 매출은 매년 증가할 전망이다. (유)유진솔라의 공장 건립은 추후 부안 신재생에너지산업단지의 분양과 새만금 산업단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도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에는 (유)유진솔라 외에도 경일그린텍(주), (유)엠퍼스트 및 테라리스(주)(舊(주)퓨얼셀) 등 3곳의 기업이 현재까지 투자협약을 맺었으며, 이 중 경일그린텍(주)은 투자협약을 완료한 상태다.

나머지 3개 업체들이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입주기업으로 총면적 7만 1,000㎡ 중 3만7,000㎡가 분양되어 분양률은 53%로 확대된다. 또한 새만금 산업단지에서는 현재 28GW 규모의 육상 및 수상태양광 사업이 조성 중으로 (유)유진솔라의 부력체 공급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호상 기자

### 현대차 전주공장, 초등 입학

### 다문화 자녀들에 따뜻한 선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공장장 최준혁) 노사는 23일 초등학교 입학할 뉘는 다문화가정 60세대를 위한 '글로벌마을화향-행복 플러스' 지원사업 물품을 굿네이버스 전북지역본부와 완주군가족센터에 전달했다.

이번 사업은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자녀를 가진 다문화가정에 학교활동 전반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불안감을 해소하고, 학부모와 자녀 모두 행복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데 목적이 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사는 이를 위해 굿네이버스 전북본부, 완주가족센터와 함께 예비 학부모를 위한 온라인 Zoom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 교육강사를 통해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학부모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왔다. 또 초등학교 눈높이에 맞춰 특별제작한 컬러링 북과 책가방 학용품 등을 선물하기도 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 젊은 농촌 만들기 고민·해결 방안 모색

### 농진청, 오늘 관계인구 확대 위한 농촌공간 활용방안 포럼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한국농촌진흥학회와 함께 24일 국립농업과학원에서 관계인구 확대를 위한 '농촌공간 활용방안 농업환경 미래혁신 포럼'을 연다.

23일 농진청에 따르면 이번 공개 토론회는 지방 소멸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젊은 농촌 만들기에 대한 고민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관계인구를 활용한 인구 유입 전략 ▲유휴 공간 활용을 통한 지역 활력화 방안 ▲일본 농촌지역 유휴 공간 활용사례 등 주제 발표에 이어 젊은 농촌 만들기를 주제로 종합토론을 벌인다. 여기서 나온 토론의 아이디어는 올해부터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생활권 진단 농촌 디지털 중심(허브)모델 개발 등 청년 일자리와 창업 활성화를 통한 젊은 농촌 만들기 연구과제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국립농업과학원은 살고 싶은 농촌 및 포용적 성장환경 조성을 목표로 청년 주도의 스마트 농촌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농진청 농업환경부 김경미 부장은 "공개 토론회가 청년들이 찾아오는 젊고 활기찬 농촌을 만들어나가는데 구체적인 생각을 모으고 실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 중심의 청년 연구와 지속가능한 미래 농촌을 만들어가는 현장 연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대희 기자

## 도내 마스크 제조업체

## 우선구매 발판 마련

### 도-경진원, 공공구매 상담회

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도내 마스크 제조업체의 우선구매 확대와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마스크 공공구매 상담회'를 23일 개최했다.

이날 상담회에는 도내 마스크 제조업체 9개사가 참여해 KF94인증 마스크, KF-AD렌탈마스크 등 식약처 인증 제품을 소개하고 실시간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제품 전시와 기관·참여업체 별 1:1 심층 상담을 통해 우선구매 효율성을 제고했다. 상담회에 참석한 ▲전북도교육청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 ▲전북개발공사 ▲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 등 7개 공공기관은 도내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경진원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한 실시간 스트리밍 병행으로 공공기관의 참여율을 확대하고 참여기업의 판로개척 지원에 주력했으며, 이번 마스크 우선구매 상담회를 시작으로 전북도와 경진원은 사회적경제기업 등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해 공공구매 전시·상담회 및 소규모상담회를 10회 정도 추가 진행할 예정이다.

이현웅 경진원장은 "앞으로도 도내 각 분야별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인식 개선과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라며 "우선구매 확대를 통한 도내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발판 마련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희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일입니다.